

‘예울마루’ 효과…여수를 바꾸다

여주시 망마산 자락에 자리잡은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앞바다가 바라다보이는 산자락에 지난 5월 세계적 수준의 아트센터(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가 전국적인 문화명소로 변신했다.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자크 페로가 설계한 넘실대는 유리지붕 아래서는 늘 수준높은 명품공연들이 펼쳐지고 시민들은 이전에 만나기 힘들었던 작품들을 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총 60여편(전시포함)이 공연됐으며 7만5000여명의 관객들이 다녀갔다.

오랫동안 문화불모지로 불렸던 인구 25만명의 작은 도시 여수 앞바다가 문화의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 공연이 활발한 수도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뮤지컬 ‘맘마미아’ 등 대형 공연이 연달연시 예울마루에서 펼쳐진다. 아트센터가 도시의 이미지를 바꾼 효과다.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1100억원을 들여 지난 5월 개관한 예울마루(지상 7층, 건축 연면적 2만4945㎡)는 여수를 단숨에 ‘남해안의 진주’로 바꾸어 놓았다.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자변화대는 물론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30만 여주시민들의 감성을 일깨우며 폭 넓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개관 기념행사로 KBS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한·중연합 오케스트라단의 공연과 여수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배병우의 특별전, 고 손아원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오페라, 네덜란드인 하멜과 그의 선원들이 여수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쓴 러브스토리를 오페라로 만든 ‘귀향’ 등을 선보였다.

또한 여수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 설화를 창작가무악극으로 제작한 ‘오돌레’ 등이 무대에 오르면서 여수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외 사람들에게 여수의 문화를 알렸다. 특히 창작 오페라 귀향과 창작가무악극 오돌레는 1000회의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 세계박람회 기간 중

개관 7개월만에 60여 작품 전시·공연…문화도시로

망마산 시민 발길 줄이어…맘마미아 등 걸작 대기



오랫동안 문화불모지로 불렸던 국토 남단의 여수시가 지난 5월 GS칼텍스 여수예울마루가 개관하면서 남해안의 문화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예울마루에서 개최된 제 21회 전국무용제 공연 모습.

많은 인기를 끌었다.

공연계의 피크시즌인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2일 뉴에이지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음악 인생 10년을 기념하는 ‘2012 이루마 콘서트’가 여수 시민들을 찾아간다. 7층 전시실에서는 ‘동물의 사육제’가 관람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 전시된다.

시민 김현희(46·여수 문수동)씨는 “예울마루 개관 후 가까운 곳에서 걸작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예전에는 광

주 등 대도시를 찾았는데 여수에도 세계적인 시설과 품격을 갖춘 문화공간이 있어 문화 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예울마루 이승필 관장은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의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관객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여수가 명실상부한 남해안의 문화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대기업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 재편”

朴당선인 경제계 방문…“대기업 골목상권 침해·정리하고 자제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경련을 잇따라 방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일계를 밝히고 협조를 구했다.

박 당선인은 우선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환이 경제 성장을 그동안 떠받치던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겠다”면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맞아 경제를 살리는 일이야말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이고 그 중심에 ‘9988’(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수 99%이고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

업 종사자가 88%라는 의미)의 중소기업 살리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거나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중소기업의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횡포나 불공정 거래는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하고, 중소기업인들과 힘 합쳐 그 일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이날 낮 여의도 전경련 회관을 방문, 대기업 회장단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는 적극적인 지원하겠다”면서도 “대기업도

좀 변화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 분담에 나서주시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한참 일할 나이에 퇴직시키는 고용 형태는 앞으로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도 자제되었으면 한다”며 “서민들이 하고 있는 업종까지 재벌 2·3세대들이 뛰어들거나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당선인 이르면 오늘중 인수위 일부 인선

7~8개 분과…인원 100명 넘어설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르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부 인선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를 신호탄으로 인수위→내각→청와대 비서진으로 이어지는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인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인선과 관련 “빠르면 내일이라도 발표하겠다”며 “(인수위 인선) 다는 아니지만 부분이라도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총괄간사 등 핵심 직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한광옥 전 국민통합특별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8개 정도의 분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기존 인수위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분과별로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인수위원장 직속으로 특위가 설치될 경우 산하 TF는 국민대통합이나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등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이 내세운 핵심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야로 3~4개 정도 꾸려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실무형이면서 최소 인원으로 인수위를 꾸리기로 원칙을 정한 가운데 전체 인원은 1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 삼성동 금융연수원으로 정해졌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후 첫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정하는 조각(組閣)에 나설 계획이다./이종형기자 golee@

本 社 人 事

- ▶朴珍賢 편집국부국장 겸 문화2부장
- ▶金鍾萬 문화사업국장 직무대리
- ▶程厚植 편집국부국장직무대리 겸 정치부장
- ▶朴治洙 편집국부국장직무대리 겸 사회부장
- ▶金日煥 편집국부국장직무대리 겸 여론매체부장·방송보도부장 (2012년 12월 27일자)

제49회 The 49th Trade Day

무역의 날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세계일류 무역강국으로

우리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한걸음 한걸음 시작한
기계공업의 길
고객과 함께 정성을 다해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1952

2012

화천기공주식회사